

계란값은 높았지만 사료외상 대금은 줄지 않았다.



구 천 석
(자훈농장 대표)

5 만원이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적체되는 분유 재고를 어쩔 수 없어 어느 조합에서는 분유로

우유대금을 정산하여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젖소를 모두 팔아버리는 목장이 속출 하더니 지금은 우유생산량이 부족하여 증산책의 일환으로 새로 젖소를 입식하는 농가에게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우유조합도 있다고 한다.

돼지값이 폭락하여 생산비는 고사하고 사료값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기르던 돼지를 몽땅 팔아 버리는 양돈장이 하나둘 늘어날 때 그나마 계란값은 생산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주위사람 뿐 아니라 채란업자조차도 채란계업은 돈을 버는 업종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우리 채란업자들 중에는 계란값은 분명 좋는데 사료 외상값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는 계란대금을 받아서 사료대금을 결제하고, 고용인부의 급여를 비롯하여 전기요금·약품대금 등을 지불한 다음 그 나머지는 모두 수익금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란 한알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비에는 양계장 시설물 전반에 걸친 감가상각비는 물론 시설할 때 빌려쓴 이자, 특히 초생추를 구입해서 산란할 때까지의 육성비 즉, 가축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란 한 개당 생산비조차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농장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농장운영을 하다보면 사료외상대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보면 현재 우리가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계란값은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전국민이 지나가고 있는 IMF라는 터널이 우리 채란업자에게만은 비켜나가 예외로 많은 소득을 남겨줄리도 없지 않는가!

대한양계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란실용계 판매수수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되는 계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하여 줄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질병 등으로 인해 입추된 실용계가 상당수 도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태된 수수만큼 농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리라 본다.

닭이 도태될 때에는 사육비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약품값을 동반하다보니 농장은 더욱더 큰 피해를 보게 되며 이러한 피해액은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계란값으로는 도저히 만회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계란 소비량도 상당량 줄었고 이에따라 유통량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상당량 줄었다.

계란의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보니 생산자와 상인간의 계란가격 문제로 다투는 일도 줄었으며, 계란이 소비되는 장소도 기존의 재래시장이거나 계란가게 위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하나 생겨나면 편리한 주차장, 완벽한 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가게 보다는 조금은 더 싼가격 때문에 주변상



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며 상인들은 할인매장의 납품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곳엔 어느 곳에든지 이익폭이 줄어들게 마련이고 상인에게 줄어든 마진폭은 농장계란값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쉽상이다.

이렇게 계란상인이 '박리다매'리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생산자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인지 지난 몇해동안 정부자금이나 리스자금 등을 이용한 대형농장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외부자금을 이용한 농장들은 IMF시작과 때를 같이 하여 높은 이자와 환율의 차이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압박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남의 집 내부 속사정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래도 대부분 이러한 고통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다.

상환시기가 끝나면 이러한 대형농장들은 생산비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규모가 적은 농장

우리가 겪고 있는 IMF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현실속에서
생산량 증가에만 주력하다보면
우리나라 채란업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암담하지 않은가.

에 비하여 생산비가 월등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형농장과 중·소농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어 나갈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채란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사

전에 예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생산되는 산란용 초생추가 모자랄 정도로 입추열기가 대단하며 채란계 농장시설을 하는 기자재 생산업체도 매우 바쁘다고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IMF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현실속에서 생산량 증가에만 주력하다보면 우리나라 채란업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암담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계란의 수요와 공급이 현재와 같은 균형이 유지되도록 우리 계란 생산자들은 입추열기를 좀더 식히고 생산 시설 확장에도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료외상값을 줄이고 계란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질병퇴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우리 최선을 다해 농장운영에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윤 용 구
 우 체 국 : 101634-0021930, 예금주:윤 용 구